

# 지리산허브밸리 겨울정원축제 개최

2월 5~6일 사전예약제 현장 관람 · 모든 체험형 행사 온라인 화상체험으로 진행

지리산허브밸리에서는 포인세티아와 말채, 천리향 등 겨울에 빛이 나는 식물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초화류를 소재로 겨울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현장관람과 함께 온택트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 방역에 따라 두 차례 연기를 추진되는 이번 '지리산허브밸리 겨울정원축제'는 사전예약제에 따른 현장 관람과 모든 체험형 행사는 온라인 화상체험으로만 진행하며, 현장 관람은 지리산허브밸리 홈페이지(<https://www.jisanherbvalley.com/>)와 함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겨울정원에서는 식물원 내에 다양한 색깔의 초화류와 밝은 톤의 관엽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겨울화단 장식, 포인세티아 꽃폭포와 꽃향아리 그리고 강열하면서도 이국적인 정인포 토존 등이 설치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천리향과 왁스 등의 꽃향기와 로즈마리 등의 잎향기를 소재로 한 향기산책을 즙음과 이완으로 겨울정원의 깊은 향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겨울정원축제에서는 운봉화훼 농가와 함께 운봉의 꽃을 소재로 한 절화 작품 전시, 운봉의 꽃 화병 온택트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티스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운봉화훼를 적극적으로 축제와 결합하여 지역 브랜드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테라리움, 행잉 플라워 등 온택트 체험은 허브밸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SNS와 유튜브(남원시) 등을 통해 행사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접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지리산허브밸리에서는 포인세티아와 말채, 천리향 등 겨울에 빛이 나는 식물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초화류를 소재로 겨울정원을 조성하고 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현장관람과 함께 온택트 행사를 진행한다.

## “부안군 문화예술작품 전시관 마련해야”



이강세 부안군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 문화예술작품 전시관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세 부안군의원, 5분 자유발언서 “군민 · 문화예술인 소통 공간 반드시 필요”

이강세 부안군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 문화예술작품 전시관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예술의 현대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해 피력하며 “부안군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개발하고 부안군 문화예술인이 작품을 통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부안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전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시관의 시급한 마련을 위해 현재 건

설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부안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강세 의원은 “문화예술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현시대에 특히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부안군 문화예술인의 역량과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는 타 지역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은 그에 따라주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세 의원은 “하루빨리 전시관이 마련돼 부안군민과 문화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브레이킹 훈련시스템 체계화 할 것”

라스트포원 조성국 단장, 브레이킹 초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사)라스트포원 조성국 단장은 (사)대한민국 댄스포츠연맹에서 실시한 2022년도 브레이킹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채용 선발 심사 결과,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브레이킹 국가대표 초대 사령탑을 맡게 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비보잉 또는 브레이크댄스로 불리던 비보이들의 춤사위가 브레이킹(breaking)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이번 2022 항저우아시아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은 비보이 강대국인 만큼 올해 열리는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도 메달 후보로 꼽힌다.

2022 항저우 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자 2명, 여자 2명이며, 4월 충북진천 선수촌에 들어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이번 브레이킹 초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조성국(40)은 세계메이저 대회인 유케이비보이챔피언십 2004 우승, 비보이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2005에서 우승한 바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전주시가 후원하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대



회를 주관해 기획 및 총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전주비보이문화학교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성국 감독은 “그동안 비주류로 여겨졌던 비보이 문화가 스포츠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에 초대 감독으로 함께 하게 돼 너무 영광스럽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20년 간 쌓아온 브레이킹 노하우를 대표선수들과 함께 공유하며 브레이킹 훈련시스템을 체계화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시범운영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이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재단은 ‘문화유산인 서예와 미디어’가 결합된 연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부안의 서예와 관련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서예의 역사성과 가치를 담아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 방식 또한 단순히 붓으로 글을 쓰는 것을 벗어나 서예와 미디어의 결합을 시도한다. ‘차이나는 클라스’ 등 방송 출연으로도 유명한 서예가 심석(心石) 감병기 교수가 자신이 연구개발 한 시범시스템을 토대로 교육자료로 사용될 영상을 담당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1년 10월에 출범한 재단의 첫 시범사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부안군 관내 청소년과 일반인 중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2월 19일 석정문화관에서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주교육문화회관,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 · 그림책 아카이브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3월부터 12월까지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와 ‘그림책 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는 한 학년이 같은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눠 표현하는 독서 통합 활동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8명, 중등 8명의 교사와 사서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학년별 맞춤형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그림책 아카이브’는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 하고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과 현장 견학,

특강으로 진행해 학생 1인 그림책 제작과 출판 운영 지원한다.

2022년 교육과정 내 학교 협력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2월 14~18일까지 K에듀 파인 공문과 자료집게시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광휘 관장은 “다독보다는 정독을, 독서 전-독서-독서 후의 단계적 독서 활동을 모두 담고 있는 전주교육문화회관 학교 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책 속의 가치와 즐거움을 얻고 교사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물** JANGSUMUL MALL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NAVER 장수물 [www.장수물.com](http://www.장수물.com)